

논문접수일 : 2012.09.20

심사일 : 2012.10.06

게재확정일 : 2012.10.27

##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의 성적 이미지 표현방법

Expression Methods of Sexual Image in Fashion Collection Makeup

김 지 희

대구한의대학교 웰빙복지대학 패션시각디자인학부 부교수

**Kim Jee-hee**

Faculty of Fashion Communication, Daegu Hanny Universit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 패션 컬렉션과 메이크업

- 2.1 메이크업의 의미
- 2.2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

## 3. 현대사회의 성 개념

- 3.1 메트로섹슈얼
- 3.2 콘트라섹슈얼
- 3.3 논섹슈얼

## 4. 컬렉션 메이크업의 성적 이미지 표현방법

- 4.1 이미지의 강조
- 4.2 이미지의 해체
- 4.3 이미지의 공존

## 5 결론

### 논문요약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성 개념이 메이크업을 통하여 표현된 방법에 대하여 패션 컬렉션에서 제시된 메이크업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메이크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대 사회의 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는 내면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남성인 메트로섹슈얼, 남성적 강인함과 여성적 섬세함을 갖춘 여성인 콘트라섹슈얼, 양 성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며 유연한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논섹슈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성적 이미지의 표현은 특정 성에 대한 이미지의 강조를 통해 다른 성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성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미지의 해체로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양 성의 특성을 모두 드러내는 이미지의 공존으로 하나의 개체에 두 개의 성적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성의 유동성과 선택적인 전환이 가능한 성적 이미지의 표현을 보여준다. 현대의 메이크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고 표현하며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행위가 되고 있으며, 메이크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주제어 :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 성적 이미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express the concept of sex through fashion collection makeup in modern society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social roles of makeup.

The way of looking at sex in modern society is flexible, and there are three different sorts of sexuality. One is a metro sexual that refers to a man who admits and reveals his own inner femininity, and another is a contra sexual that denotes a woman who has both masculine toughness and feminine delicacy. The third is a non-sexual which refer to a person who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sexes and perform sexual roles in a flexible manner.

In fashion collection makeup, emphasizing the image of a particular sex makes it possible to convert to the other sex, and dissolving an image that doesn't have any particular sexual characteristics makes it possible to express various kinds of identity. In addition, there is a coexistence of images that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sexes, which is to admit that two different sexual images could coexist in a single individual.

Makeup is not only a way of expressing one's identity and values but one of primary sociocultural behaviors that represent, describe and lead the flow of society. In the future, makeup will be of a greater social significance.

**Key Word: Fashion collection, Makeup  
Sexual Imag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신체는 우리의 영혼과 실체를 연결해주는 유기적 존재이며 사회생활 속에 자신을 직접 투영시켜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표현을 넘어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인간의 발달정도, 사회의 표현상, 사회적 통제력 등을 말해준다(김지희 외, 2006).

신체를 통해 개인을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신체를 이용한 장식은 원시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신체 장식을 통해 미적 가치의 표현 뿐 아니라 집단 내에서의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고 소속감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신체를 이용한 장식은 현대에 와서 메이크업이라는 보편화된 문화행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간이 행하는 문화적, 사회적 행위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의상만으로 개성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은 가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개성과 감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양진희, 김희선, 2008). 특히 현대의 메이크업은 개인의 외적 아름다움의 표현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 메이크업의 트렌드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며 표현되어지고 있다.

특히 패션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은 단순한 화장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시대와 사회의 관념과 문화, 가치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표현되며, 이를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이 갖는 의미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미적 욕구의 충족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화적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패션과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패션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문화의 중요한 담론 중 하나인 성 개념에 대하여, 패션 컬렉션에서 중요한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메이크업을 통한 표현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의 사회문화적 표현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메이크업의 트렌드 분석에 머물거나(김미현, 이유나, 2008; 이희중, 구자명, 2006), 메이크업과 예술양식과

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강은주, 2008; 윤성희, 강근영, 2008; 정연자, 2009)를 통해 메이크업의 미적 가치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메이크업을 사회적 담론과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메이크업의 사회적 가치반영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담론인 성 개념과 관련하여 현대의 성 개념을 표현한 메이크업의 표현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메이크업의 사회문화적 표현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고, 사회문화와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메이크업의 역할을 규명하여 미적 표현의 영역을 넘어 메이크업의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 1.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담론이 되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이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된 형식을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이 개인의 미적 욕구의 충족이나 예술적 가치로써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표현 도구로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대 사회의 성 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라 등장하게 된 새로운 성적 정체성과 그 의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성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메이크업을 통해 나타나는 현대의 성 개념의 가시적 표현 형태와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다.

둘째, 이와 같은 이론적 기초를 근거로 성 개념의 변화의식이 반영되어 나타난 메이크업의 표현 형식을 패션과 사회문화와의 교류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을 통한 현대의 성 개념의 표현 방법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철학, 사회문화, 예술, 메이크업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였으며, 해외 컬렉션에서 제시되었던 메이크업을 패션 컬렉션 전문잡지, 인터넷 사이트의 사진 자료를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패션 컬렉션은 패션에 관련한 트렌드를 제시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시기의 중요성이 요구되므로 현재와 근접한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11 S/S, 11 F/W, 12 S/S, 12 F/W의 최근의 패션 컬렉션으로 한정하였으며, 성 개념과 관련한 연구는 남녀의 성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여성복 컬렉션과 남성복 컬렉션을 모두 자료 수집,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 2. 패션컬렉션과 메이크업

### 2.1 메이크업의 의미

메이크업은 얼굴을 중심으로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써, 유사이전부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행해지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원초적 표현 방법으로 존재해 왔다. 메이크업은 외형적으로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인 역할과 인상을 결정하고 패션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표시, 사회적 예의를 표하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시대를 반영하는 사회적 언어의 기능으로 사용되어졌으며(강은주, 2008) 내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자치관 등을 표현하는 심리적 역할과 개인과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강한 상징성을 지닌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 또한 자아의식을 표출하는 한 형태로서 개인적인 면에서는 자아의식의 표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신체의 일부에 색상을 부여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뿐 아니라 건강미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고유미와 개성미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결점을 보완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치유를 가능케 한다(김남희, 2003).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메이크업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유사시대를 통해 계속 되어왔으며, 메이크업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장식설, 이성 유인설, 보호설, 종교설, 신분 표시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하였다고 보며 이집트인의 메이크업은 자연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의학적인 기능 이외에도 상징적, 종교적 의미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 메이크업의 미학은 내적 만족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Fontanel, B., 2004)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표출시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가치관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더 나아가 사회문화의 흐름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 2.2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

패션은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예술이나 영화와 같은 문화의 주류 구성요소가 되었다(전혜정, 2007). 대중 매체들에 의해 오토 쿠튀르(Haute Couture)나 프

레타 포르테(Pret-a-Porte)와 같은 패션 컬렉션 정보는 실시간으로, 손쉽게 대중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패션 컬렉션은 패션디자이너와 뷰티디자이너 분야에서 트렌드를 제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패션 컬렉션은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 특히 패션과 메이크업은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하고 서로간의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패션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은 패션과 함께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의식을 표현하는 유행사조를 보여주며 세계 뷰티 트렌드를 창조하고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희중, 2006).

패션 컬렉션에서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잡화 등 토털 패션의 요소로써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다(최은지, 1999). 또한 디자이너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적 가치 추구를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를 표현함과 동시에 실험적인 정신이 드러나는 중요한 요소이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은 디자인과 색채를 포함하여 발상에서의 다양한 이미지가 시도될 뿐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매 시즌의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가 완성되며 패션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비중이 크게 인식되고 있으며(김미현, 이유나, 2008)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의상 스타일과 조화 또는 부조화의 미로 형태나 소재 등에 있어서 창의적인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강은주, 2008).

메이크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패션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그 시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그 시대와 사회의 관념과 문화, 가치관의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최신 유행 뷰티 트렌드를 알고 다음 시즌의 유행을 예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미적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나아가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현대사회의 성 개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문화로 대변되는 유연한 사고와 수평적 가치관, 다원화를 인정하는 새로

은 패러다임은 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도 새로운 관념들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녀의 성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들에서부터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고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지만(김용섭, 2005), 인간의 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예술과 철학, 대중문화 등 사회 전 방위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고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김지희, 2010)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디지털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성을 구분하는 판단기준은 신체물리학적 조건에 의한 기준으로 생물학적 본능이나 생물학적 차이에 기준을 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구분되어지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이 있다(권기영, 2004).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찰은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성(gender)을 새로운 분석의 범주로 자리잡게 만들어 놓았으며 생물학적, 사회적 성에 구애받지 않는 네오 젠더 유형의 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새로운 성적 정체성이 등장하고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성 개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이전 세대들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던 것도 주요한 배경이지만 디지털화가 가져다 준 사회 환경의 변화도 주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디지털 문화는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성을 보장해주고 이것이 성적 정체성을 생물학적 성의 기준에서 탈피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김용섭, 2005).

현대사회에서 성에 대한 개념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정된 성이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후천적 결과물로서, 현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개념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규정된 사회문화적 성인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성에 대한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화된 고정적 정체성을 넘어서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함께 인간에게 내재된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개념으로 어떠한 성에도 정착하지 않고 어떠한 성으로도 변화와 적응이 가능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원화된 성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는 내면의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남성, 여성적 특질을 유지하면서 남성성을 추구하는 여성, 남성과 여성의 양성의

특질을 모두 갖춘 존재로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성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남성상, 여성상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메트로섹슈얼, 콘트라섹슈얼, 논섹슈얼로 표현될 수 있다.

### 3.1 메트로섹슈얼

디지털 사회로 들어오면서 등장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은 디지털 사회에서 성과 신체관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회현상으로,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혼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인 여성적이고 섬세한 문화기저에 대한 표출이다.

메트로섹슈얼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21세기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할 때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로서, 1994년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 심프슨이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적 취향의 남성을 메트로섹슈얼로 표현한 것이 시초이다. 메트로섹슈얼은 자신을 가꾸고 자신감이 넘치는 현대 남성미를 대표하는 용어로, 여성스러운 미소년의 얼굴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패션, 헤어스타일 등 외모 가꾸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즐기는 현대 남성을 뜻한다.

메트로섹슈얼은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남성상과는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성적인 기질을 그대로 지니면서 여성적 감성 코드를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한다. 특히 이들은 패션과 트렌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읽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스타일 메이커이자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권지은, 2003). 메트로섹슈얼은 소비문화 조장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이해할 수 있다(김용섭, 2005).

메트로섹슈얼과 같은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존재해 오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성의 구분보다 계급이나 부의 차이에 따라 장식의 정도가 달라 여성복과 남성복의 차이가 비교적 적었지만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패션에서의 남성복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난 이후 유니섹스(unisex),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젠더리스(genderless)로 남성복이 여성화되는 것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이들과 메트로섹슈얼은 외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내면적인 면에서는 그 특성이 확연히 구분된다.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는 표피적인 패션에서의 스타일만을 지향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남성의 여성문화를 나타낸다고 보다는 피상적이며 외형적인 모방의 성격이 많았다. 이에 반해 메트로섹슈얼은 근본적으로 그들 문화의 특징적인 성격을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이정민, 2009).

기존의 성 개념에서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대립구도 속에 놓여 있었지만 유연한 사고와 여성성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남녀의 실제적 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자연적인 성차인 섹스보다는 성 역할의 사회화 과정에 의한 성 개념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안소현, 이경희, 2000). 특히 정보사회로 인식되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여 비교적 섬세함, 상상력, 감수성을 갖춘 정보 노동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여성의 감정적 사고와 능력들이 더 중요해짐에 따라 남성들은 페미니스트적인 사고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메트로섹슈얼 현상은 남성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메트로섹슈얼은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성 개념에 대한 전통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한 개인의 내면에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며 유연한 성역할의 수행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적 정체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20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성의 변환을 경험해보는 방법으로 화장이 일반화 되고 있다. 또한 피부를 관리하거나 성형을 시도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것은 내면의 여성스러움 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변형, 왜곡하는 행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성적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과거로부터 있어왔으나 그것은 사회규범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메트로섹슈얼은 외형 뿐 아니라 그 내면적 의미에 가치를 두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남성상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 3.2 콘트라섹슈얼

콘트라섹슈얼(contra-sexual)의 등장은 전통적인 남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던 여성들이 양성평등 환경 하에서 남녀 역할 경계가 모호해진 시기에 남성성에 대해 접근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김용섭, 2005).

콘트라섹슈얼이란 개념은 영국의 미래학 연구소에

서 출발했다. 어원적으로는 반대의, 대조적인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contra와 성이란 의미의 영어 sexual이 합쳐진 것으로 원래의 의미는 '반대의 성' 정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래학 연구소는 이것을 '기존의 성역할 및 관념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여성 혹은 그 성향으로 풀이했다(이연수, 2005). 콘트라섹슈얼은 선머슴같은 중성화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서는 남성을 따르되 생물학적 역할에서는 여성성을 그대로 고수하기도 한다(김용섭, 2005). 콘트라섹슈얼은 결혼과 함께 남편을 내조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탈피해 기존의 남성들과 같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성공과 명예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을 의미한다.

여성이 좀 더 주체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여성의 본격화된 사회진출과 사회적 역할에서의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사회 환경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시대는 여성에게 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화된 편리한 생활과 첨단기술의 혜택 뿐 아니라 진보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도 가져다주었다. 생활전반에 걸쳐 놀라운 속도로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인 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어지던 힘으로 상징되는 남성의 특성에 대한 요구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이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게 되었으며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여성적인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섬세함, 부드러움, 인내 등의 여성적 자질은 21세기 디지털 마인드에 적합하게 활용되면서 사회는 여성적 능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타고난 성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는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특정 성에 대한 절대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성에 의한 역할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그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몰입할 수 있다.

미래의 여성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남성 없이도 아기를 갖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아기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성

적 역할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현대 사회는 기존의 페미니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성평등의 범위를 확대시켜 외면적으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여성성을 유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고 필요에 따라 양성의 특성 중 필요한 특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의 동시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콘트라섹슈얼은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강인한 여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남성의 고유영역, 여성의 고유영역에 대한 고정 관념은 이미 허물어졌으며 남성적인 강인함과 여성적인 섬세함을 동시에 갖추고 자신의 외모를 적극적으로 가꾸며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당당한 자의식으로 무장한 콘트라섹슈얼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여성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3.3 논섹슈얼

디지털 세상의 도래는 여성스러운 남성 혹은 남성스러운 여성처럼 전통적인 성의 구분이 붕괴되고 양성의 이점을 공유한 새로운 유형의 존재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기존의 성적 정체성의 사회적 진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양성 평등시대를 맞아 성 역할의 이분법적 구도가 붕괴되면서 겪는 양성의 교차와 유기적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용섭, 2005).

현실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주어졌던 성적 정체성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면서 성 역할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남녀를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 역시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적 구분의 모호함은 양성 평등과 함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평등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성 자체가 남녀 두 가지로 정형화되지 않음으로 기존의 성적 소수자에게 더 이상 마이너나 비주류라는 의미를 두지 않게 된다. 성 정체성의 구분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사고는 남녀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성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두 개의 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자동동체, 퓨전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또는 어떠한 성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무성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논섹슈얼(non-sexual)은 이러한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의 어떠한 성으로도 고정되지 않는, 새로운 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기반의 휴먼 네트워크에서는 아바

타로 자신의 성을 표현하는데 굳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적 성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바타 자체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적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미 디지털 신인류에게 성적 구분은 남성과 여성만이 아닌 논섹슈얼도 있는 것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공간에서는 성별의 추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성별의 의미는 구분의 의미일 뿐, 차별이나 분리의 의미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김용섭, 2005).

디지털 시대의 혼성의 개념은 성 정체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간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할 수도 있으며, 두 성의 장점이 융합함으로써 양자의 어디에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제 3의 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다중적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들은 어떠한 확실한 경계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다면적인 성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 시대의 성은 하나의 개체에 여러 개의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혼재하는 성의 동시성을 인정하고, 다른 성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함께 배타시 되던 제 3의 성까지도 인정하는 유연한 성 정체성으로 표출된다.

디지털 세대의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신체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성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의 형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면적 의미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논의 외에 외형적 이미지에서도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중성적 이미지를 하나의 성으로 인정한다.

논섹슈얼은 외형적 이미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한 중성적 이미지를 의미한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적 느낌의 짧은 머리, 미소년 같은 얼굴, 글래머가 아닌 여린 몸매의 여성이나, 마초적인 이미지보다는 부드럽고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남성상을 추구한다.

디지털 문화에서 성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인정하고 그 성의 좋은 점을 선택적으로 융합시켜 양성의 특성을 공유하거나 더 나아가 양성의 특성 이외의 특성을 지닌 새로운 인간상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성별의 분리구도의 의미를 절대성에서 상대성으로 바꾸고 그 정도 또한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미래에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성을 구분 짓는 모호함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된 새로운 유형의 성 정체

성을 갖는 존재가 탄생하고 수용될 것이다.

#### 4. 컬렉션 메이크업의 성적 이미지 표현방법

시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디지털 인류에게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의식의 변화는 자신의 외모 역시 원하는 성에 따라 바꾸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성 정체성은 외모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스타일, 의상, 피부 관리, 이미지, 잘생긴 외모 등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수단이다. 몸이란 단지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Bordo, S., 2003).

디지털 시대의 신체에 대한 개념은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얼굴과 몸의 형태를 바꾸어 보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며 신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험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신체를 이용한 성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은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을 통하여 성 정체성의 일시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거나 신분을 표시한 수단을 넘어서서 성 정체성을 표현하고 바꾸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수단이 되고 있다.

##### 4.1 이미지의 강조

사회문화적 트렌드로서 메트로섹슈얼이나, 콘트라섹슈얼은 남성은 여성을 흉내내고, 여성은 남성을 흉내내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용섭, 2005). 메이크업을 통해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역시 상대방의 성적 특성을 나타내는 메이크업 요소를 차용하여 적용함으로써 상대 성에 대한 이미지를 강력히 표현할 수 있다. 즉 메이크업에서 남성적, 여성적 이미지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성으로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또는 자신의 본래의 생물학적 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각 성에 대한 고정적 성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던 요소를 메이크업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성의 변화나 강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강조는 한 범위 내에서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중심적 성격이다.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한 단위 내에서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고 돋보이는 곳이 있어야 하며 다른 부분은 적절하게 보조적인 역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박혜원 외, 2006). 메이크업에서도 전체의 얼굴에서 어느 한 부분의 성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그 성에 대한 강

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성으로의 변환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전통적으로 굵고 짙은 눈썹은 남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며 붉고 진한 입술은 여성적 이미지의 표현으로 활용되어져 왔다.

Ann Demeulemeester('11S/S)는 여성에게 남성을 상징하는 굵고 진한 눈썹 메이크업으로 남성성을 부여함으로써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

남성적 이미지의 강조는 Channel('12F/W)의 컬렉션에서도 나타나서 굵고 직선적으로 뺨은 눈썹과 눈매의 강조로 여성 메이크업에서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2].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굵고 진한 눈썹을 통하여 여성의 메이크업에서 남성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여성 속에 내재된 남성성을 외형으로 표출시켜 남성성을 지닌 강인한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Christian Dior('11S/S)은 남성복 컬렉션에서 메트로섹슈얼의 남성을 등장시켰다. 부드럽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과 함께 깔끔한 피부표현과 립글로스로 표현된 반짝이는 입술의 표현은 남성 속에 내재된 여성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메이크업에서 강조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의 표현은 반대의 성에 대한 성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남성성을, 남성의 여성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본래의 성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그 성의 특성을 강하게 강조하여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John Galliano('11S/S)는 크게 부풀린 헤어스타일과 함께 눈썹과 입술의 강조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둥근 아치형으로 가늘고 길게 빼서 그린 눈썹은 부드러운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1930년대 영화배우와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윤곽이 뚜렷하고 강렬한 색채의 입술은 조각같은 완벽함과 차가운 관능미로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 반면 Michael Kors('12F/W)는 둥글고 도톰한 입술라인과 함께 강조된 붉은색의 블러셔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여, 내면의 부드러운 여성성을 강조하여 외면적으로 표출시키고 있다 [그림 5].

자신의 본래의 성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메이크업은 John Galliano('11F/W)의 남성복 컬렉션에서도 나타난다. 짙고 직선적인 눈썹의 강조로 남성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사선으로 강하게 표현된 눈썹 라인은 강한 힘을 느끼게 함으로써 남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그림 1]  
AnnDemeulemeester('11S/S)  
출처: www.sty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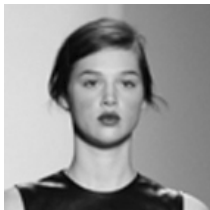
[그림 2]  
Channel ('12F/W)  
출처: www.style.co.kr



[그림 3]  
Christian Dior ('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4]  
John Galliano ('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5]  
Michael Kors ('12F/W)  
출처: www.style.co.kr



[그림 6]  
John Galliano ('11F/W)  
출처: www.style.co.kr

디지털 시대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느 한곳에 우위를 두지 않고 양성의 장점을 모두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성 개념을 갖는다. 성 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사고는 '여성스러운', 혹은 '남성스러운' 이라는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 개념은 메이크업에서 성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한 개체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메이크업을 통하여 다른 성의 성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성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4.2 이미지의 해체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남성적일수도, 여성적일수도 있다는 현대의 성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을 초월하여 새로운 성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경계를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성 정체성으로 창조되고 있다.

새로운 성 정체성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배경으로 한다. 디지털 공간의 가상공간은 다양한 정체성을 창조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으로 성적 구분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성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동시에 어떠한 성으로도 상상이 가능하다.

성의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 방법은 메이크업에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는 남녀의 성적 특성을 해체하여 두 가지의 어느 하나에도 우위를 두지 않음으로, 성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눈썹이나 립 라인과 같은 선으로 표현될 수 있는 메이크업 라인의 흐릿한 경계는 남성적, 혹은 여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얼굴의 윤곽을 구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 이외에 확실한 경계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다면적인 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고는 메이크업에서 성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Alexander McQueen('11F/W)은 눈썹과 립 라인을 피부색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통해 성별을 추측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어떠한 성 정체성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Channel('11S/S)은 짙은 컬러의 아이샤도우를 사용하여 눈의 형태나 눈썹 라인과 같은 성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적 이미지를 제거하였으며 [그림 8], Rick Owens('11S/S) 역시 짙은 컬러의 아이샤도우를 이용하여 본래의 눈의 형태와는 다르게 사선으로 높게 올라가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눈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눈썹의 형태를 제거하여 성적 구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림 9].

Viktor & Rolf('11S/S)는 얼굴 전체를 일반적인 피부색이 아닌 전혀 다른 색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눈썹이나 눈, 입술과 같은 얼굴의 윤곽도 함께 지움으로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나 인종, 혹은 성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류, 제 3의 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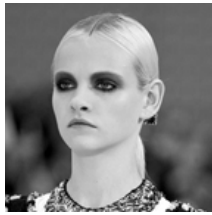
익명성과 성 정체성의 부재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은 오브제를 활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Alexander McQueen('12S/S)은 오브제를 활용하여 얼굴의 일부분을 가림으로서 성 정체성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

Junya Watanabe('11S/S)는 얼굴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가림으로서 더욱 그 정체성을 구분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그림 12].



[그림 7]  
AlexanderMcQueen ('11F/W)  
출처: www.sty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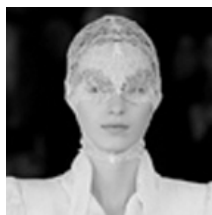
[그림 8]  
Channel ('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9]  
Rick Owens ('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10]  
Viktor & Rolf ('11F/W)  
출처: www.style.co.kr



[그림 11]  
AlexanderMcQueen('12S/S) Junya Watanabe('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12]

메이크업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의 해체는 얼굴의 윤곽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성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를 왜곡시키거나 가리는 방법을 통해 성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확실한 경계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다면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고는 메이크업에서 성적 특성을 왜곡, 제거하고 해체하여 성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게 함으로써, 어떠한 성으로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사람의 상상에 의한 다양한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 4.3 이미지의 공존

디지털 시대는 모든 가치기준에서 절대성이 해체되고 공존과 공생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있다. 성 개념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면서 두 가지의 성적 특성이 하나의 개체에 존재하며 각각의 특성을 넘어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는 자동동체나 컨버전스, 퓨전으로 표현되고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메이크업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적 이미지가 하나의 메이크업에 동시에 표현되는 이미지의 공존으로 나타난다.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성적 특성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하나의 메이크업에 남녀의 두 가지 성적 요소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의 공존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이질적 성 요소를 하나의 메이크업에 도입함으로써, 풍부한 표현과 애매성이 강조될 수 있다.

Marni('11S/S)는 여성스럽게 정돈된 눈썹과 밝은 컬러의 아이샤도우로 표현된 눈에 굵고 진한 직선적 아이라인의 아이메이크업으로 남성적 이미지의 눈매를 표현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13].

Prada('11S/S) 역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동시에 표현된 메이크업을 제시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표현하고 있다. 굵고 진하며 직선으로 힘있게 짙은 눈썹으로 강인한 남성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펄을 사용한 밝은 컬러의 아이샤도우로 눈매를 강조하여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을 추구한다 [그림 14].

John Galliano('11F/W)는 근육질의 남성모델에게 몸매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스럽게 각이 지고 길게 그려진 눈썹과 밝은 색의 블러셔, 여성스러운 립 라인으로 여성적 메이크업 특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으며 매트르섹슈얼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남성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5].

MiuMiu('12F/W)의 컬렉션에서는 굵은 눈썹을 통해 남성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형태면에서는 곡선으로 아치형을 그리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눈썹이라는 메이크업 요소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눈썹을 통한 표현과 함께 밝은 펄 컬러의 아이샤도우를 넓고 둥글게 바름으로써 굵은 눈썹과는 대조적으로 여성스러운 눈매를 느낄 수가 있다 [그림 16].

메이크업에서 이미지의 공존은 남성적 이미지의 메이크업 요소와 함께 화려한 색상이나 패턴의 여성적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하

도록 하고 있다.



[그림 13]  
Marni ('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14]  
Prada ('11S/S)  
출처: www.style.co.kr



[그림 15]  
John Galliano ('11F/W)  
출처: www.style.co.kr



[그림 16]  
MiuMiu ('12F/W)  
출처: www.style.co.kr

디지털 시대의 성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사고는 양성성의 이점을 공유한 새로운 유형의 존재를 탄생시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양 성의 특성 중 필요한 특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의 동시성을 추구한다. 메이크업에서는 하나의 개체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모두 드러냄으로서 중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하나의 개체에 두 개의 성이 모두 존재할 수 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은 현대의 성 개념과 관련하여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의 표현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현대의 성 개념은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해체하여 새롭게 탄생시키고,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는 방법을 취하며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눈썹라인이나 립 라인, 아이 라인 등의 선의 요소와 눈의 형태나 눈썹의 형태와 같은 형태 요소, 아이샤도우나 립 컬러, 블러셔, 피부색과 같은 컬러의 요소가 모두 사용 될 수 있다.

## 5. 결론

신체를 매개체로 한 장식은 메이크업이라는 문화 행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표현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행위로 인식되어지며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담론이 되고 있는 성 개념이 패션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을 통하여 표현된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을 표출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메이크업의 역할과 사회문화적 표현 도구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패션 컬렉션은 패션과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션 컬렉션에서 메이크업은 그 시대의 미의식과 가치관, 사회상을 반영하고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 패션 컬렉션의 메이크업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성 개념은 남성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면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남성인 메트로섹슈얼, 내면적으로는 여성성을 유지하면서 외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남성적 강인함과 여성적 섬세함을 갖춘 여성인 콘트라섹슈얼, 하나의 성으로 고정되거나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확실한 경계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다면적 정체성을 지닌 논섹슈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메이크업의 의미	메이크업의 표현방법	성 개념과의 연관
이미지의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성의 성적 요소 강조</li> <li>반대 성의 강조로 새로운 정체성 표현</li> <li>선택적 성 전환의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썹 라인의 강조</li> <li>눈썹 형태의 강조</li> <li>립 라인의 강조</li> <li>립 컬러의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트로 섹슈얼</li> <li>콘트라 섹슈얼</li> </ul>
이미지의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 구분의 요소제거</li> <li>익명성과 성 정체성의 부재 표현</li> <li>성별 파악의 불가능</li> <li>다면적 정체성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썹 라인, 립 라인의 제거</li> <li>눈 형태의 왜곡, 변형</li> <li>윤곽이나 형태를 제거</li> <li>오브제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 섹슈얼</li> </ul>
이미지의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질적 성 요소를 동시에 표현</li> <li>풍부한 표현과 애매성</li> <li>성의 동시성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밝은 컬러의 아이샤도우와 직선적 아이라인</li> <li>신체와 대조되는 성 이미지 메이크업</li> <li>남성적 선과 화려한 컬러, 패턴의 여성적 요소 동시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 섹슈얼</li> </ul>

[표 1]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의 성적 이미지 표현방법

패션 컬렉션에서 성 개념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은 성적 이미지의 강조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성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구현하고자 하는 성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며 어떠한 성으로도 쉽게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면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사고는 메이크업에서 이미지의 해체를 통해 성적 특성을 왜곡하거나 제거하여 성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특정 성으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으로 변화가 가능하게 한다. 성의 동시성 추구는 메이크업에서 이미지의 공존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하나의 메이크업에 양 성의 특성을 모두 드러냄으로서 하나의 개체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성적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양 성의 특성 중 필요한 특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성적 이미지 표현은 눈썹 라인과 눈썹 형태의 변화나 제거를 통해 가장 다양하고 강렬한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아이 라인을 이용한 눈 형태의 왜곡이나 변화, 립 라인을 이용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또한 아이샤도우, 블러셔, 피부색, 립 컬러 등의 컬러를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성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동일한 컬러를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성적 구분의 무의미함을 표현하였다. 즉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는 눈썹 라인, 립 라인, 아이 라인 등의 선 요소와 눈의 형태나, 눈썹의 형태 등의 형태 요소, 아이샤도우나 립 컬러, 블러셔, 피부색과 같은 컬러의 요소를 모두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패션 컬렉션에서 메이크업은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성과 실험정신을 표현하고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고 흐름을 형성하며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현대의 메이크업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미적 가치의 표현 영역을 넘어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가시적 언어의 기능을 가짐으로서, 메이크업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메이크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주 (2008).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18,

121-130.

- 권기영 (2004). 패션잡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성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100-111.

- 권지은 (2003).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남희 (2003). 『기초 메이크업』. 서울 : 예림

- 김미현, 이유나 (2008). 2008-2009F/W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2), 151-159.

- 김용섭 (2005). 『디지털 신인류』. 서울:영림카디널.

- 김지희 (2010). 디지털 시대의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성개념의 상징성. 『한국디자인포럼』, 29, 223-234.

- 김지희, 정윤희, 황윤정 (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서울 : 경춘사.

- 박혜원, 이미숙, 염혜정. 최경희, 박수진 (2006). 『현대패션디자인』. 서울 : 교문사.

- 안소현, 이경희 (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성개념 변화 추이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4(5), 702-713.

- 윤성희, 강근영 (2008). 현대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래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4(3), 249-258.

- 양진희 (2007). 남성 메이크업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 학회지』, 3(2), 155-162.

- 양진희, 김희선(2008).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양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4), 763-773.

- 이연수 (2005). 『싱글마케팅』.서울 :비즈니스북스.

- 이정민 (2009). 남성 메이크업에 나타난 여성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5(1), 11-18.

- 이희중, 구자명 (2006). 2000년대 전반기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7(1), 105-125.

- 전해정 (2007). 『현대패션과 디자이너』. 서울 :신정

- 정연자 (2009).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적 가치.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0(4), 227-242.

- 최은지 (1999).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Bordo, S., 박오복 역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서울 : 또하나의 문화.

- Fontanel, B., 김보현 역 (2004). 『치장의 역사』. 김영사 : 경기

- www.style.co.kr/collection